

엘리트체육은 기본...인성·학습까지 모두 잡는다

싱가포르 스포츠클럽가보니

국가대표 양성의 산실 '전문 체육학교' '훈련+학습' 맞춤형 교육 유연성 더해 스포츠만 집중 않고 '학생선수'에 초점 '사회 구성원' 역할 기능토록 학습력 ↑ 김정희 위원장 "전남 체육교육 변화될"

싱가포르 스포츠클럽이 엘리트체육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인성과 학습 능력이 이르기까지 균형있는 성장을 이끌어내며 전남 체육 교육이 지향해야 할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6일 오전 싱가포르 북쪽 우드랜드 지역에 위치한 '싱가포르 스포츠클럽'(SSP,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이날 SSP를 방문해 싱가포르 체육 교육 현황을 청취한 뒤 학교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싱가포르 체육청 산하 SSP는 독립된 전문학교로 중·고등학생을 위한 통합 스포츠 및 학습 프로그램 제공하고 있다. 2004년 공식 개교했다. SSP는 훈련 환경과 지식 학습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학교 공간을 갖추고 있다. '스포츠'에 집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6일 오전 싱가포르 스포츠클럽을 찾아 학교 관계자로부터 체육 교육 현황을 청취한 뒤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스포츠클럽 방문은 지역인재 육성 기반 마련과 미래교육 대응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김재정 기자

중하는 게 아니라, '학생선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이 우리나라 체육 교육 시스템과 확연히 다른 대목이다. 학생들이 해외 전지훈련을 갈 경우 온라인 수업을 통해 기본 교과 일정을 소화할 정도로 학습에 '진심'이다.

또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전문기술학교인 폴리텍 교수가 SSP로 직접 방문해 강의하며 교육의 유연성을 확보,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운동이나 해외훈련을 가더라도 개인별 맞춤

형 시스템을 제공, 어떤 경우에도 엘리트체육 학생들의 학습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교육 과정도 눈에 띈다. 현재 SSP에는 6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IB 교육 과정을 적용, 졸업 후 전문 체육인으로서의

삶을 넘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웅김손 SSP 교장은 "SSP는 국가대표 육성을 준비하는 학교"라면서도 "전문 운동선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인성 교육과 상대방 배려, 사회와 협력할 수 있도록 훈련 환경과 지식 학습을 두루 제공하는 커리큘럼을 갖췄다"고 소개했다.

웅 교장은 또 "인성 교육, 리더십 교육, 사회성 교육, 싱가포르 국민으로서 필요한 부분을 포함해 더 나은 시민을 양성하는 게 교육 이념"이라고 강조했다.

3년 전부터 SSP에서 펜싱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는 광주 출신 김미정 코치는 "SSP는 배려와 인성을 강조하는 교육 시스템이어서 한국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코치는 "한국의 엘리트체육 학생들은 운동에만 몰두하고 학습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싱가포르의 공부와 스포츠를 거의 같은 비율로 병행한다"며 "시합에 나가더라도 학습 과제를 쫓는다. 아이들이 성장해서 운동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엘리트체육에만 매몰되지 않는 SSP의 유연성 있는 사회 연계 교육은 전남 체육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언급했다. /싱가포르=김재정 기자

올 상반기 전남 농수산물 수출액 5.8% '쑥'

4억1천800만달러 규모...김 51% 차지 미국·신남방시장 등 수출 확대 '주요'

전남도는 6일 "올해 상반기 농수산물 수출액이 4억1천847만달러로 미국·중국·신남방 시장 수출 확대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늘었다"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김이 2억1천371만달러로 12.1% 늘어 전체 농수산물 수출의 절반 이상(51.1%)을 차지했다. 쌀 2천795만달러, 오리털 2천372만달러, 전복 1천797만달러, 미역 1천435만 달러, 음료 1천377만 달러 등 수출액을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미국과 중국의 수출액이 1년 전

보다 각각 22.6%, 8.8% 증가하는 등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미국은 전년 대비 21.3% 증가한 김을 중심으로 장류·김치 수출이 늘었다. 중국은 김(76.6%)과 오리털(24.4%)이 호조를 보였다. 대만에서는 배 수출이 247.4% 급증하는 성과를 거뒀다. 신남방 시장도 활기를 띠었다. 베트남(24.7%), 태국(42.4%), 인도네시아(88.4%) 등지에서 김과 오리털, 주류 수출이 크게 늘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오리털 수출은 83.3% 증가했고, 필리핀에서는 김 수출이 313.4%나 급증했다. 시·군별로는 화순군(102.8%), 진도군(106.4%), 함평군(135.9%)이 두드러진 수출 성장세를

보였다. 화순군은 가공품, 진도군은 수산물 수출 확대가 주효했다. 신협군 국제협력관은 "한·미 상호관세에 따른 수출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며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피해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수출 유관기관과 협업을 활성화하겠다"며 "고부가가치 상품 중심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 글로벌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수출기업의 대미 관세 리스크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관세·FTA 전문가 컨설팅, 원산지 관리 및 통관 애로 해소, 수출 다변화 등을 적극 지원한다. /양시원 기자

광주 양동·봉선·운암시장서 9일까지 '농축산물 환급행사'

광주시는 6일 "국산 농축산물 구매 시 은누리 상품권을 환급해주는 '전통시장 농축산물 환급 행사'를 오는 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참여시장은 양동전통시장연합, 봉선시장, 운암시장 등 3개소다. 환급은 행사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행사 기간 해당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당일 구매 영수증을 환급 부스에 제출하면 본인 확인 후 구매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은누리상품권을 1인 최대 2만원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다. /변은진 기자

전남도, 우수 외국인 인재 유치 기반 조성 총력

소득 여건 완화 제도 개선 성과 속력인력 쿼터 총원을 전국 1위

전남도가 지역특화형비자 사업 활성화와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우수 외국인 인재 유치 기반 조성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지역특화형비자 사업은 지역우수인재(F-2-R) 유형과 올해 신설된 지역특화 숙련인력(E-7-4R) 유형으로 나뉜다.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전남도가 우수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한 결과 지난 7월부터 지역우수인재 유형의 연 소득 기준이 3천406만원(1인당 국민총생산 70%)에서 생활임금 수준인 2천922만원으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올해 지역우수인재 유형 쿼터 386명을 배정 받은 전남도의 경우 제도 개선 전까지 신청자가 8명에 불과했으나, 개선 직후 한 달 만에 11명이 비자 전환을 신청하는 등 뚜렷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전남도는 지역특화 숙련인력 유형에서도 쿼

터 총원을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지역특화 숙련인력 유형은 전남도 등록 외국인의 45%를 차지하는 단순 노무 근로자(E-9, E-10, H-2)가 장기 체류가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다. 전남도는 처음 308명의 추천 쿼터를 배정받았으나 빠르게 소진돼 지난 6월 130명을 추가 배정받아 총 438명으로 확대했다. 현재 303명이 비자 전환을 신청, 전국에서 가장 높은 쿼터 총원율을 기록하고 있다. /양시원 기자

도, 배추 작목전환 사업 추진

전남도가 집중용 적정 생산과 수급 안정을 위해 배추 작목전환 사업을 추진한다. 배추 작목 전환사업 지원 대상은 최근 2년(2023-2024)간 배추를 재배했던 필지로 해당 필지를 휴경하거나 귀리, 메밀 등 타작물을 재배하면 ha당 45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수급불안 품목인 마늘, 양파 등은 지원 대상 품목에서 제외된다. /양시원 기자

한 사람이 받는 보험의 전국민이 경제부담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신고 방법

-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알선이란?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